



과일

농업관측센터 aglook.krei.re.kr

배·감귤·단감 10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2015년 생산량 전망〉



사과

사과 생산량 전년보다 7% 증가 전망



배

배 생산량 전년보다 11% 감소 전망



감귤

노지온주 생산량 전년보다 6% 감소 전망



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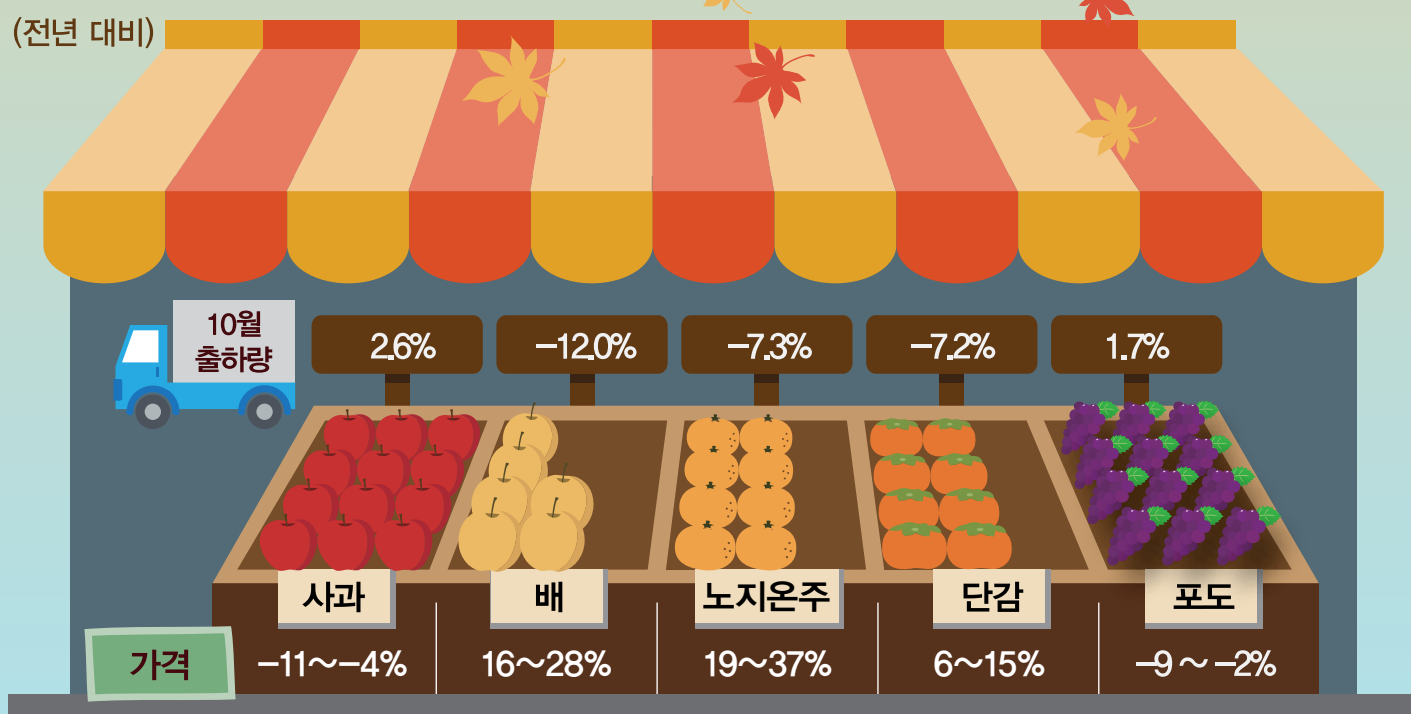
단감 생산량 전년보다 6% 감소 전망



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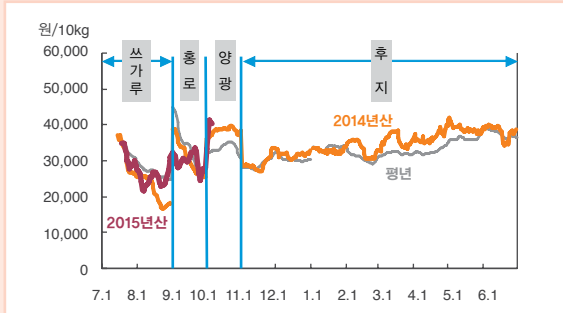
노지포도 생산량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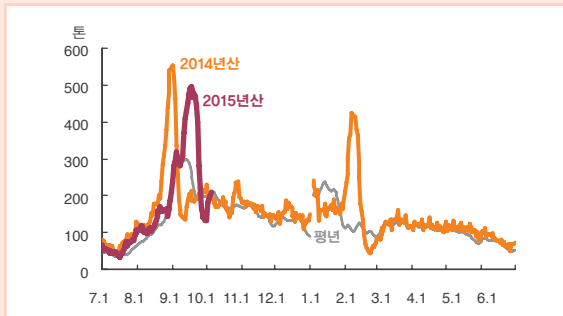
사과

■ 사과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2010~14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사과 반입량



주: 평년은 2010~14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사과 전년대비 생육상황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양광	44.1	45.5	10.4
후지	52.4	34.4	13.2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사과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0kg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쓰가루		홍로		양광	후지								
2015년산	상품	31,013	24,614	42,295	29,638	(40,802)									
	중품	20,750	16,968	30,155	21,153	(31,585)									
2014년산	상품	31,013	21,323	42,289	30,163	38,341	29,403	31,556	32,765	33,627	35,807	36,884	38,770	38,302	40,333
	중품	23,851	15,973	30,436	22,135	33,200	22,213	25,139	26,169	26,638	26,454	28,269	30,663	30,767	31,103
평년	상품	33,015	26,536	50,501	34,085	33,881	28,872	30,533	34,109	30,693	31,952	32,612	36,150	37,642	39,071
	중품	24,442	18,976	33,819	23,400	28,358	20,736	22,359	24,573	23,420	23,471	24,997	28,070	28,876	29,546

주 1) 등급은 가락시장 경락가격 구분에 따름. 평년은 2010~14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2) 2014년산 가격은 15kg을 10kg으로 환산한 가격

3) ()는 6일까지 평균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기준)

동향 추석 성수기 사과 가격 전년보다 낮아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홍로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9천원으로 전년 성수기보다 21% 낮았다. 특히, 올해는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공판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여 추석 성수기 취급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가락시장 반입량은 오히려 적었다.

생육 사과 생육상황 양호

- 10월에 주로 출하되는 양광의 생육상황은 전년보다 양호하며, 만생종 후지의 생육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병 발생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적은 반면, 고온현상으로 복숭아순나방·노린재·응애류 등 해충 발생은 증가하였으며, 생리장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전망 생산량 전년보다 7% 증가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7%, 평년보다 14% 증가한 50만 7천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성목면적이 전년보다 3% 늘어난 데다(통계청), 착과수가 많아 단수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월 사과 가격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전망

품질 10~11월 사과 품질 양호할 듯

- 10~11월에 출하될 사과 크기는 고온현상으로 전년보다 작겠으며, 일소(화상)과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사량이 풍부하고 주야간 일교차가 커서 당도와 색택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모니터 조사결과, 사과의 비상품과(가공품) 비율은 10%로 전년보다 1.7%p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하전망 10월 이후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0월 사과 출하량은 중생종 사과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이후에는 후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8% 많은 31만 6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수확 초기에 출하하기보다는 장기저장으로 출하 조절하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전망 10월 사과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만 8천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4천~3만 7천원으로 전망된다.

10월 소비자의 사과 구입 의향

- 소비자 조사결과, 올해 10월에 사과 구입을 전년보다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4%, 반대로 줄이겠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하여 10월의 사과 소비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의 10월 사과 전년대비 구입 의향

단위: %

구입 증가	전년과 비슷	구입 감소
34.4	57.7	7.9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9.30~10.1, 540명)

■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5년	21,965	2,306	507
2014년	21,399	2,218	475
증감률	2.6	4.0	6.7

주: 생산량은 유목에서 생산된 물량도 포함시켜 산정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2015년 단수)

■ 품종별 생산량 증감률 전망

단위: %

	후지	후지 조숙계	쓰가루	홍로	양광	감홍	기타
전년대비	8.6	4.8	3.0	5.2	2.9	4.8	0.8
면적비중	62.6	6.9	4.7	15.2	2.2	1.8	6.5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10~11월 출하용 사과 전년대비 예상품질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크기	16.3	26.0	57.7
색택	69.9	29.5	0.7
당도	80.8	17.9	1.4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비상품과 비율

단위: %, %P

	2015년	2014년	차이
비율	9.6	11.3	-1.7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모니터 조사치

■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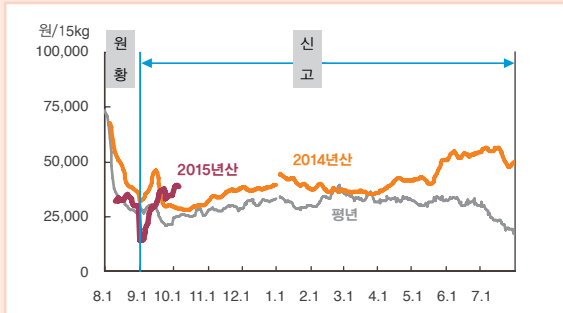
단위: 천톤, %

	7~9월	10월	11월 이후
2015년	136.0	54.1	316.4
2014년	129.5	52.8	292.4
평년	109.0	49.6	284.6
증감률	전년대비	5.0	2.6
	평년대비	24.8	9.1

주: 평년은 2010~14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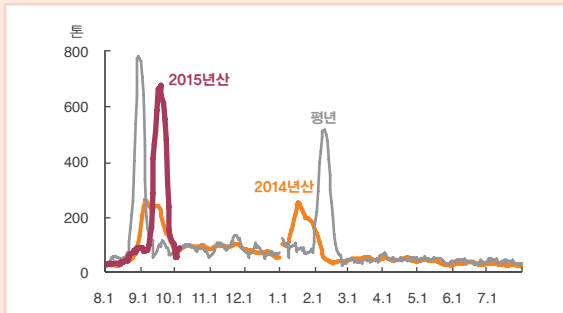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배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2010~14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배 반입량



주: 평년은 2010~14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배 생육상황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전년대비	33.1	28.4	38.4
평년대비	31.8	38.5	29.7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배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5kg

		원황	신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15년산	상품	32,358	27,995	(38,555)									
	중품	25,251	18,033	(26,124)									
2014년산	상품	37,123	25,299	25,876	28,578	31,731	30,497	33,774	33,651	32,883	31,592	31,813	22,902
	중품	29,794	18,888	20,231	22,159	23,668	23,254	24,624	23,875	23,171	21,384	21,567	13,086
평년	상품	42,976	37,380	28,981	35,155	38,058	41,659	36,581	36,198	40,266	44,651	53,397	52,735
	중품	34,020	25,317	22,737	25,234	26,965	27,754	27,499	26,469	28,799	29,413	36,849	29,449

주 1) 등급은 가락시장 경락가격 구분에 따름. 평년은 2010~14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2) ()는 6일까지 평균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동향 추석 성수기 배 가격 전년보다 높아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4천원(7.5kg 2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6% 높았다. 흑성병과 저온피해로 비정형과가 많아 상품물량이 적었고, 추석이 늦어 출하 분산이 원활하였기 때문이다.

생육 과실 비대 전년보다 원활하지 않고, 해충 많아

- 올해 배의 과실 비대는 9월 강수량이 적어(전국 기준 전년 대비 -50%) 전년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는 흑성병 발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순나방과 심식나방, 가루깍지벌레 등 해충 발생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전망 배 생산량 전년보다 11% 감소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전년보다 4% 감소(통계청)한데다, 과실 비대 저조로 단수도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11% 적은 27만 1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 감소폭이 전월 조사치(전년대비 -10%)보다 다소 커진 것은 가뭄으로 과실 비대가 전년보다 저조하고, 흑성병과 해충피해를 입은 과가 예상보다 많기 때문이다.

생산량 감소로 10~11월 출하량 전년보다 적을 전망

품질 10월 출하용 배 당도 전년보다 높아

- 10월에 출하될 배의 모양은 전년보다 좋지 않고, 크기도 비대기에 강수량이 적어 작은 반면, 당도는 일조량 증가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모니터 조사결과, 올해 비상품과(가공품) 비율은 전국적으로 흑성병과 해충피해가 많아 전년보다 5%p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하전망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12% 감소 전망

- 10월 배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2% 적은 2만톤으로 예상된다.
- 11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9%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10월 배 가격 전년보다 높을 듯

- 10월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만 6천원)보다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3만 3천원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조사결과

- 소비자의 추석 이후 배 구입시점은 '2주일 이내'가 16%, 설 전까지 구입하지 않거나 전혀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도 16%로 나타났다. 반면, 사과는 '2주일 이내'가 37%이지만, 설 이전까지 혹은 구입하지 않는 비중은 2%에 불과하여 배의 구입주기가 비교적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의 배·사과 구입주기

단위: %

	2주일 이내	2~4주일 이내	1~ 2달	2~ 3달	설 이전까지 구입 안함	전혀 구입 안함
배	15.7	38.6	22.4	7.7	10.6	5.0
사과	36.5	38.2	17.9	4.7	0.9	1.9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9.30~10.1, 540명)

■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5년	11,782	2,299	271
2014년	12,230	2,475	303
평년	13,301	2,194	292
증감률	전년대비	-3.7	-7.1
	평년대비	-11.4	4.8

주: 평년은 2010~14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2015년 단위)

■ 10월 출하 배 전년대비 품질

단위: %

	좋은	비슷	나쁨
크기	27.5	36.8	35.7
당도	77.6	22.2	0.2
모양	26.1	21.7	52.2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출하량 전망

단위: 천톤, %

	10월	11월 이후
2015년산	20.0	166.7
2014년산	22.8	182.4
평년	29.0	184.6
증감률	전년대비	-12.0
	평년대비	-31.0

주: 평년은 2010~14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9월 배 수출량 전년보다 증가

- 8월 배 수출량은 원형뿐만 아니라 이른 추석을 대비하여 조기수확된 신고까지 수출되었던 전년보다 41% 적었지만, 평년보다는 21% 많았다. 9월에는 수출이 원활하여 전년보다 39% 증가하였다.

■ 신선배 수출 동향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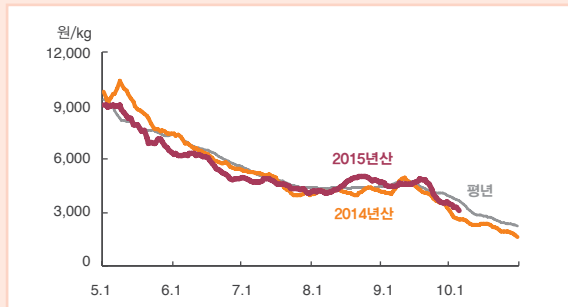
	8월	9월	10월	11월~익년 7월	계
2015년산	1,977	2,383			4,360
2014년산	3,359	1,719	4,608	13,716	23,402
2013년산	1,619	2,645	5,057	15,161	24,482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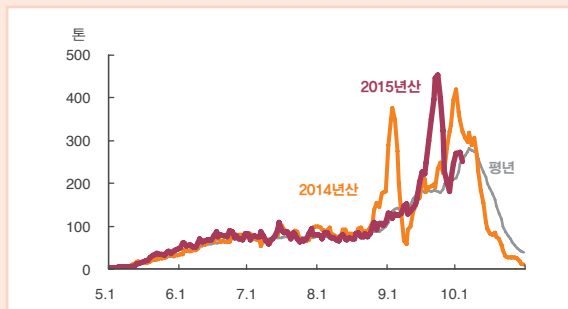
감귤

■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



주: 평년은 2010~14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하우스온주 출하량



주: 평년은 2010~14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노지온주 생육상황

	좋음	비슷	나쁨
전년대비	55.7	37.7	6.6
평년대비	54.6	38.9	6.5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온주 월별 도매가격(평균단가)

	하우스		노지					
	9월	10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15년산	4,446	(3,319)						
2014년산	4,012	2,533	1,094	1,069	1,214	1,018	1,008	953
2013년산	5,296	3,209	1,446	1,324	1,386	1,553	1,663	1,627
2012년산	4,568	2,599	1,291	1,224	1,239	1,213	1,308	1,492
평년	4,375	3,057	1,429	1,243	1,274	1,362	1,329	1,420

단위: 원/kg

주 1) 전국 9개 공영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임. 평년은 2010~14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2) ()는 6일까지 평균가격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동향 9월 하우스온주 가격 전년보다 높아

- 9월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1% 높은 kg당 4,450원이었다.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6% 감소한데다, 품질이 좋아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노지생육 노지온주 생육상황 양호

- 올해 노지온주는 생육기간 중 강한 비바람이 발생하지 않아 상처과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병 발생도 적어 전반적인 생육상황이 전년보다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방제에 소홀했던 일부농가에서 더듬이병 발생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실 품질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지생산 노지온주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2% 준데다 (통계청), 단수도 4% 감소하여 전년보다 6% 적은 54만 1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주산지인 서귀포시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겠으나, 제주시는 해거리 현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지온주 생산량 전년보다 6% 적을 듯

품질 10월 출하용 감귤 품질 양호할 듯

- 10월 출하용 하우스온주의 품질은 기상여건 호조로 전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에 출하될 노지온주의 외관과 당산비 등 전반적인 품질도 전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에는 잦은 강우와 풍상해로 인해 부패과와 상처과 발생이 많았으나, 올해는 태풍과 돌풍의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조량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최근 잦은 강우가 있었으나, 극조생 노지온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하전망 10월 감귤 출하량 전년보다 7% 감소 전망

- 10월 전체 감귤 출하량은 전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9월 추석 성수기에 출하가 집중되면서 잔여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노지온주는 극조생온주 재배가 많은 제주시의 생산량이 줄어 전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이후 노지온주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5%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전망 10월 감귤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0월 하우스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530원)보다 높은 kg당 3,000~3,200원으로 전망된다.
- 10월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는데다, 품질도 좋아 전년(1,090원)보다 높은 kg당 1,300~1,500원으로 전망된다.

10월 출하용 감귤 전년대비 품질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하우스온주	외관	60.0	40.0	0.0
	크기	40.0	60.0	0.0
	당산비	60.0	40.0	0.0
노지온주	외관	63.8	32.3	4.0
	크기	55.5	34.5	10.0
	당산비	54.5	42.7	2.8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노지온주 전년대비 병해충 발생 정도

단위: %

	많음	비슷	적음
더듬이병	42.9	28.6	28.6
잿빛곰팡이병	14.3	42.9	42.9
궤양병	0.0	57.1	42.9
쿨응애	14.3	42.9	42.9
총채벌레	0.0	60.0	40.0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5년	16,627	3,253	541
2014년	16,941	3,385	573
증감률	-1.9	-3.9	-5.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4년),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생산량 전망치는 과실 비대기 및 성숙기의 강수량 등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10월 이후 감귤 출하예상량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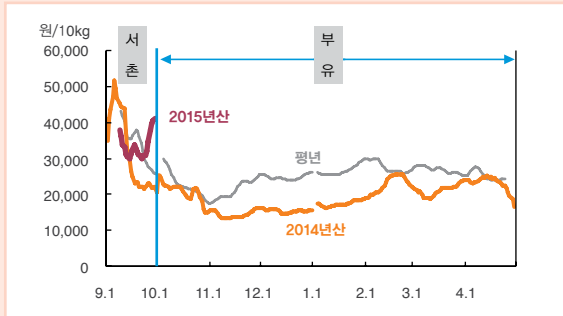
	10월	11월 이후
하우스온주	-6.9	-
노지온주	-7.3	-5.4
전체	-7.3	-5.4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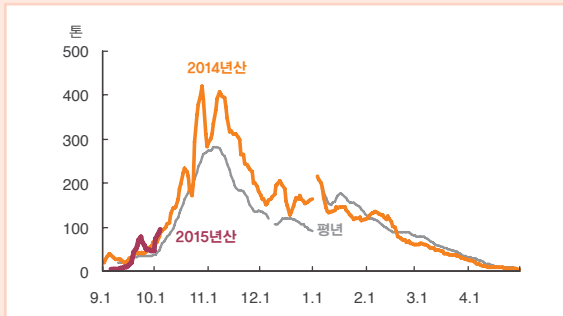
단감

■ 단감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2010~14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단감 반입량



주: 평년은 2010~14년산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단감 생육상황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전년대비	30.5	48.8	20.6
평년대비	23.5	64.0	12.5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단감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0kg

		서촌조생	부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15년산	상품	33,233							
	중품	18,226							
2014년산	상품	29,628	20,814	14,229	15,277	17,206	22,355	21,158	22,485
	중품	16,042	16,244	10,239	11,805	14,160	16,852	14,630	14,713
평년	상품	34,677	22,631	21,216	24,529	26,949	27,584	27,252	26,434
	중품	19,279	17,668	16,124	19,921	21,895	21,674	20,515	20,749

주: 등급은 가락시장 경락가격 구분에 따름. 평년은 2010~14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기준)

동향 추석 성수기 단감 가격 전년보다 낮아

- 추석 성수기(추석 전 1주) 서촌조생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원(중품 1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29% 낮았다.
- 올해는 늦은 추석으로 인해 송본·상서·태추 등 다양한 품종도 출하되어 출하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그러나 9월 전체 도매가격은 추석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던 전년보다 12% 높은 3만 3천원이었다.

생육 올해 단감 생육상황 양호

- 현재까지 단감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9월 말 기준 병해충 조사결과, 경남 창원과 고성에서는 미국선녀벌레 발생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기상호조로 병해충 발생이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단감 출하량 전년보다 7% 감소 전망



생산전망

단감 생산량 전년보다 6% 감소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18만 1천톤으로 전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성목면적이 전년보다 4% 줄어든 데다(통계청), 단수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품종별로는 부유 생산량이 전년보다 7% 감소하고, 서촌과 차랑은 각각 7%, 5%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는 주산지인 경남지역의 경우 전년보다 6% 감소하고, 경북과 전남지역은 각각 4%,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10월 단감 품질 양호할 듯

- 10월에 출하될 단감의 품질은 기상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병해충의 발생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외관이 우수하고, 크기는 작으나 일교차가 커 당도는 좋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하전망

10월 출하량 전년보다 7% 감소 전망

- 10월 단감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7%, 11월 이후에도 6%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10월 단감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0월 부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만 1천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2천~2만 4천원으로 전망된다.

■ 단감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5년	10,672	1,697	181
2014년	11,146	1,735	193
평년	12,055	1,455	175
증감률	전년대비	-4.3	-2.2
	평년대비	-11.5	16.6

주: 평년은 2010~14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2015년 단수)

■ 품종별 생산량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부유	서촌	차랑
성목면적	-4.3	-3.9	-4.0
단수	-2.2	-3.1	-1.4
생산량	-6.5	-7.0	-5.4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지역별 생산량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경남	경북	전남
성목면적	-2.9	-0.3	-8.9
단수	-2.6	-3.2	-1.2
생산량	-5.5	-3.5	-10.1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10월 출하용 단감 전년대비 예상품질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외관	40.9	44.7	14.4
크기	22.6	43.4	34.1
당도	63.3	34.1	2.6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10월 이후 출하예상량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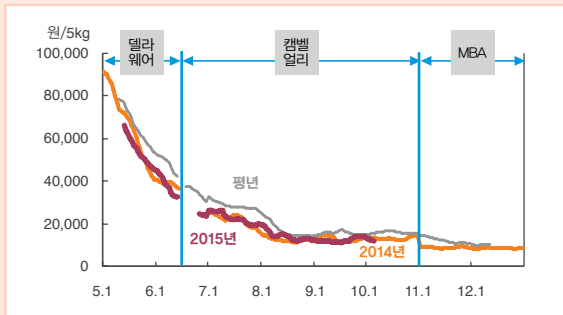
	10월	11월 이후
출하예상량	-7.2	-6.1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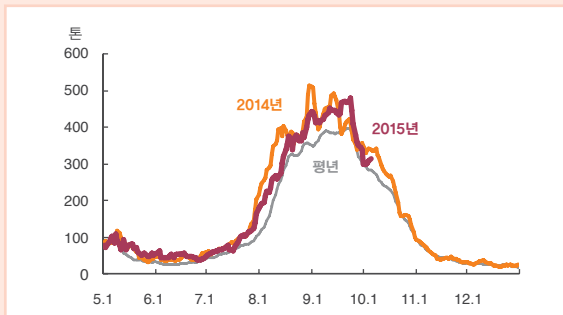


■ 포도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2010~14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포도 반입량



주: 평년은 2010~14년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노지포도 생육상황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전년대비	47.9	35.4	16.7
평년대비	41.2	43.4	15.3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포도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

		거봉(2kg)			캠벨얼리(5kg)				MBA(5kg)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2015년	상품	7,743	7,892	(8,176)	13,945	12,167	(12,186)		12,385	(11,401)	
	중품	6,737	5,729	(4,615)	9,193	9,398	(9,278)		10,722	(9,731)	
2014년	상품	8,490	7,953	8,068	12,354	12,512	13,198	13,648	12,309	10,325	8,788
	중품	7,200	5,411	4,935	8,749	9,775	10,799	9,937	10,555	8,695	7,297
평년	상품	11,365	9,971	9,676	17,081	15,476	16,255	15,251	15,161	14,804	13,461
	중품	9,552	7,713	6,626	11,936	12,665	12,665	11,472	13,126	12,626	11,379

주 1) 등급은 가락시장 경락가격 구분에 따름. 평년은 2010~14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

2) ()는 6일까지 평균가격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기준)

동향 9월 포도 가격 전년보다 소폭 하락

- 9월 포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캠벨얼리가 상품 5kg 상자에 1만 2천원, 거봉은 2kg 상자에 7,9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 1% 낮았다.
- 당초 추석 특수로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과와 배 등의 공급이 원활하였으며, 시장에 반입된 포도의 품질도 좋지 않아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생육 올해 노지포도 생육 대체로 양호

- 올해 노지포도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8월 이후 고온현상으로 경북 상주 등에서는 생육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병해충 조사결과, 병 발생은 전년보다 적지만, 갈색날개 매미충(경북 상주·김천, 충북 영동·옥천), 미국선녀벌레(경기 화성, 충북 영동·옥천), 노린재(경북 상주) 등 해충 발생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전망 노지포도 생산량 전년보다 1% 증가 추정

- 올해 노지포도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전년보다 4% 감소(통계청)하였으나, 기상호조로 단수가 5% 증가하여 전년보다 1% 증가한 22만 1천톤으로 전망된다.

10월 이후 포도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의 경우 작황은 양호하나, 성목면적이 줄어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겠으며, 거봉은 유목의 성목화가 이뤄지면서 단수가 증가하여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 10월 출하용 포도 품질 전반적으로 양호

- 10월에 출하될 포도는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매우 높고, 크기도 전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 하지만 고온현상으로 착색과 성숙이 지연되어 색이 붉은 포도가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전망 10월 이후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10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노지포도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데다, 9월의 낮은 가격으로 포도를 저온저장해 두었다가 10월 이후로 출하를 늦추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가격전망 10월 포도 가격 전년보다 낮을 듯

- 10월 캠벨얼리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3천원)보다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2천~1만 3천원으로 전망된다.
- 10월 MBA 도매가격은 전년(1만원)보다 낮은 상품 5kg상자에 9천~1만원으로 예상된다.

포도 폐업신청 현황

- 노지포도·시설포도가 폐업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15.5.19.)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폐업을 신청한 포도 재배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병해충 전년대비 발생 정도

단위: %

	많음	비슷	적음
노균병	0.0	27.8	72.2
갈색무늬병	15.8	26.3	57.9
꽃매미	10.5	31.6	57.9
갈색날개매미충	36.8	36.8	26.3
갈색여치	6.3	50.0	43.8
미국선녀벌레	36.8	21.1	42.1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10월 출하 포도 전년대비 품질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포도알 크기	49.9	42.5	7.6
당도와 산도	66.6	32.3	1.1
착색상태	40.6	34.6	24.8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노지포도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15년	11,007	2,007	221
2014년	11,466	1,908	219
증감률	-4.0	5.2	0.9

자료: 통계청(성목면적),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노지포도 품종별 생산량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캠벨얼리	거봉	MBA
성목면적	-5.4	-0.4	-2.7
단수	6.1	4.1	3.8
생산량	0.4	3.7	1.0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10월 이후 출하예상량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10월 이후
출하예상량	1.7

자료: 농업관측센터 9월 30일 기준 전망치

※ 생산량과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여건과 생육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바나나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5년	243,813	28,607			272,420
2014년	251,573	25,306	30,659	51,587	359,124
2013년	208,417	25,437	28,942	50,808	313,604

자료: 한국무역협회

■ 파인애플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5년	48,657	4,104			52,761
2014년	51,023	5,385	6,539	12,473	75,420
2013년	50,928	4,775	7,079	13,134	75,917

자료: 한국무역협회

■ 오렌지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5년	104,636	2,608			107,244
2014년	92,148	2,408	1,796	2,018	98,371
2013년	144,001	2,816	2,627	3,270	152,714

자료: 한국무역협회

■ 포도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5년	57,342	1,030			58,371
2014년	51,684	932	2,241	4,404	59,260
2013년	50,702	1,138	1,834	5,069	58,743

자료: 한국무역협회

■ 키위 수입량

단위: 톤

	1~8월	9월	10월	11~12월	계
2015년	19,904	2,493			22,397
2014년	16,001	1,847	1,680	62	19,590
2013년	15,344	2,558	2,139	24	20,065

자료: 한국무역협회

동향 9월 과일 수입량 전년보다 10% 많아

- 주요 신선 과일의 1~9월 누적 수입량은 전년보다 4% 증가한 55만 9천톤이었다. 9월 수입량도 전년보다 10% 증가한 4만 1천톤이었다.

바나나·파인애플 10월 바나나 수입 전년보다 증가, 파인애플 감소 전망

- 9월 바나나 수입량은 중남미산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13% 많았다. 10월에는 필리핀의 가뭄 해갈로 생산량이 회복되어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9월 파인애플 수입량은 전년보다 24% 적었으며, 10월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가뭄은 해갈되었지만, 바나나보다 생육기간이 긴 파인애플의 생산량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렌지·포도 10월 오렌지·포도 수입 전년보다 감소 전망

- 9월 오렌지 수입량은 남아공산 오렌지 수입으로 전년보다 8% 많았지만, 10월에는 칠레 산지에 내린 비로 상품과가 적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포도 수입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하였다. 10월 수입은 미국 포도의 관세율 하락('14년: 12%→'15년: 6%)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포도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위 10월 키위 수입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9월 키위 수입량은 뉴질랜드와 칠레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35% 많은 2,493톤이었으며, 10월에도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과일 구입행태 소비자 조사

●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1,000명) 중 응답자 540명
- ▶ 조사기간 및 방법: 2015. 9. 30~10. 1(2일간), 온라인 조사
- ▶ 조사지역: 서울, 경기, 강원,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구, 대전, 전북, 충북

■ 소비자는 기타 수입과일 중 베리 종류 가장 많이 구입

- 주요 수입과일(오렌지,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등) 이외에 기타 수입과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94%로 조사되었다.
- 구입 경험이 있는 기타 수입과일 품목으로는 베리류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몽(19%), 석류(15%), 레몬(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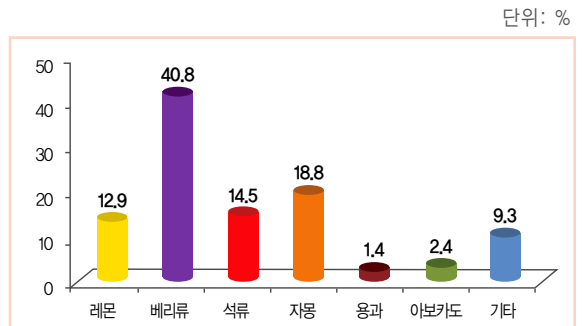
■ 소비자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기타 수입과일 접해

- 소비자들이 기타 수입과일을 접하게 된 계기로는 '언론매체'가 36%로 조사되어 방송 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 '장을 보다가 호기심에' 구입한 소비자도 29%로 나타나 대형마트에서 구색상품으로 기타 수입과일을 진열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10~11월 구입 의향 오렌지가 포도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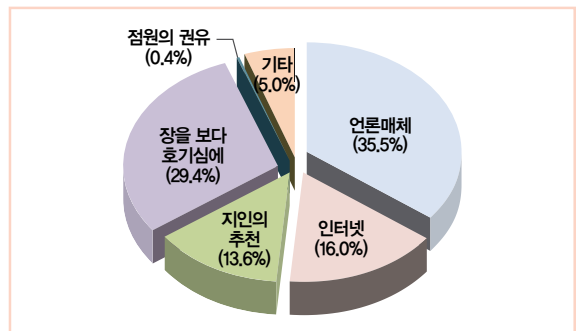
- 10~11월에 오렌지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 비중은 56%로 전년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구입의향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 수입포도의 경우 10~11월에 구입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38%)보다는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중(6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기타 수입과일 구입 경험 품목



주: 복수응답 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 기타 수입과일 접하게 된 계기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 소비자의 10~11월 오렌지 구입 의향

단위: %

	2014년	2015년
구입	57.0	56.2
비구입	43.0	43.8
계	100.0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 소비자의 10~11월 수입포도 구입 의향

단위: %

	2014년	2015년
구입	39.9	37.9
비구입	60.1	62.1
계	100.0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치

배·감·귤·단감 10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사과 10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7% 증가 전망, 크기 다소 작으나 품질 상당히 양호
- 사과 10월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전망
-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4~11% 내외 낮을 전망

배 10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11% 감소 전망, 당도는 크게 높은 상황
- 배 10월 출하량은 생산량 줄어 전년보다 12% 감소할 듯
- 10월 신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상품 15kg에 3만~3만 3천원 전망

감·귤 10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보다 6% 감소 전망, 현재까지 생육상황 양호
- 하우스온주·극조생 노지온주 출하 줄어 전체 10월 출하량은 7% 감소할 듯
- 감·귤 10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줄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

10월 단감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 포도는 증가 전망

- 단감 10월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6%)로 전년보다 6~15% 내외 높을 듯
- 10월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상품 5kg에 1만 2천~1만 3천원, MBA는 9천~1만원 전망

■ 주요 과일의 10월 출하량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증감률	2.6	-12.0	-7.3	-7.2	1.7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관측 2015년 11월호 예고(예정일자: 2015. 11. 6)

- **가 격 동 향** :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 **생 산 전 망** :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 **출 하 전 망** :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 **수 입 동 향** :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 석류, 자몽

이 『농업관측월보』는 인터넷(<http://aglook.krei.re.kr>)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질의응답】을 선택한 후 【글쓰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KREI 회원】에 가입하시면 과일관측월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61) 820-2331 FAX: 061) 820-2410

<http://www.mafra.go.kr> ☎ 044) 201-2252 FAX: 044) 868-0132

- 담당자 : 박기환(과일과채관측실장), 신유선(사과, 소비자 조사), 이미숙(배, 포도), 강지석(감·귤, 단감), 박지연(복숭아, 수입과일), 김수빈(그래픽)
- 감 수 : 최지현(농업관측센터장)

이 「농업관측(과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농업인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 및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과일 관측은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품목에 대하여 매월 7일에 발표됩니다.

월보 및 속보 관련 정보를 SMS 문자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http://aglook.krei.re.kr>) 또는 담당자(061-820-2310)에게 연락바랍니다.